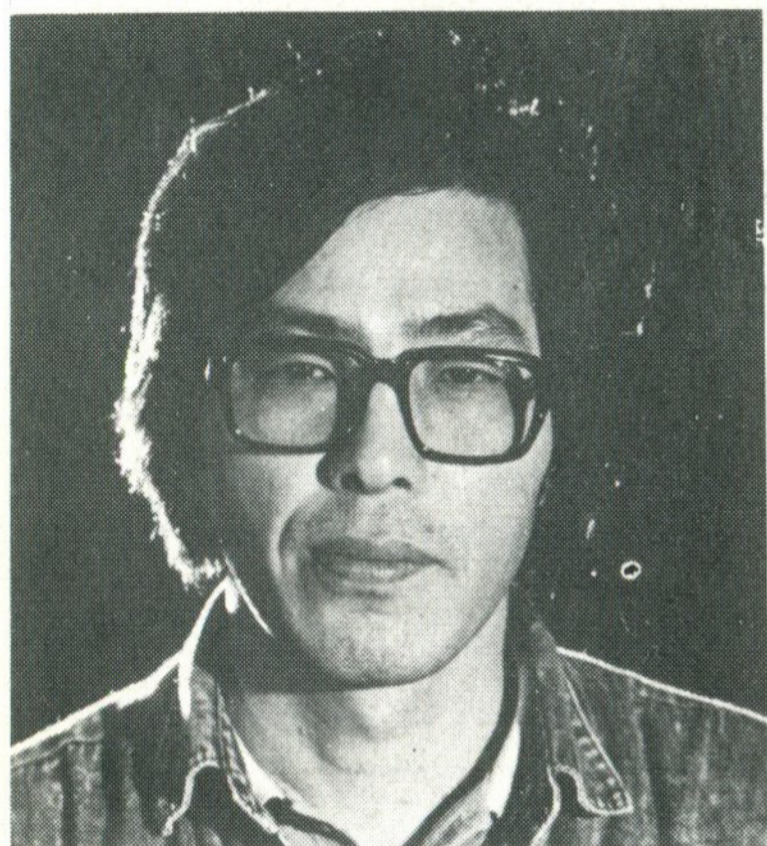


- 대사없는 일막
- 마지막 TAPE
- 動物園 이야기

---

劇團 부극劇場



대표/연출·이성규

**아직** 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나 近年 小劇場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演劇運動이 극장 운영의 정착화나 연극 저변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듯 하다.

그것은 소수 패기있고 의식이 있는 연극인들의 독기어린 필사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들과 함께 하였고, 또 함께하기를 도모하고 있는 극단「부두극장」은 우선 그들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역 연극의 발전 방향은 구태여 소극장을 중심으로 한 것만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소극장이란 연극에 대한 총체적 상황 인식을 전체 극단원이 시시각각 직면케 됨으로써 획적, 민주적 작업방식을 터득케 하고 자기혁신의 의지를 심어주는 곳이기에 지역 연극의 발전에 더 없는 초석이라 생각된다.

극단「부두극장」은 중앙동에 창고식 극장을 개설하여 철거, 이전, 가마골 소극장의 공동운영, 독립등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으나 「잃는것은 얻는것이다」라는 작품 「동물원 이야기」의 한 대사처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많은것을 얻어 왔다고 생각한다.

자체공간을 갖지 못한 3개월여의 방황끝에 극단「부두극장」은 새롭게 태어날 각오와 다짐을 해 본다.

특히 극단의 어려운 여건을 감지한 창립멤버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까지 재건의 기치를 높이 들어준 것은 일생 잊지 못할 일로 기억해 둘 것이다.

이번 작품들은 한달의 작업기간을 한정해 두고 대표를 포함한 6명의 단원이 세작품 공연이라는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자체 훈련 PROGRAM으로 마련 되었다.

기획에서 부터 공연진행까지 여러 PART를 각각 분담해서 획적 작업방식으로 연결하고 배우들에게도 여러 문제점을 던져주면서 스스로 해결해 내는 OPEN STYLE의 演出方式을

“  
지역연극의  
발전이란 결국 끈끈한  
人間的 유대위에 순수한  
아카데미즘을 확립하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사용하였다. 작품해석에서 부터 표현까지 여러가지 사전 공부의 필요성, 자유분방한 상상력, 폐쇄적이고 도식적인 연극 인식을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난해한 작품을 골라보았다.

베케트 시리즈 1로 준비한「마지막 TAPE」「대사없는 일막」은 次期공연작인 「고도를 기다리며」를 위한 사전 탐색작업의 일환으로 고려되었다.

원본의 해석은 배우 박지일氏가 「대사없는 일막」을 「마지막 TAPE」는 허대영氏가 말음으로써 출연배우들의 번역, 자료수집을 겸하게 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했다.

앞으로「부두극장」은 가능한한 여러형태의 시리즈물을 기획 공연하여 작업의 계속적인 탐색과 극단의 가장 바람직한 方向모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둔다.

지역연극의 발전이란 결국 끈끈한 人間的 유대위에 순수한 아카데미즘을 확립하는 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극단을 후원해 주시고 채찍질을 아끼지 않는 관객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짐

C·A·S·T

# 대사없는 1막

S.베케트 作 / 박지일 譯

# 마지막 TAPE

S.베케트 作 / 허대영 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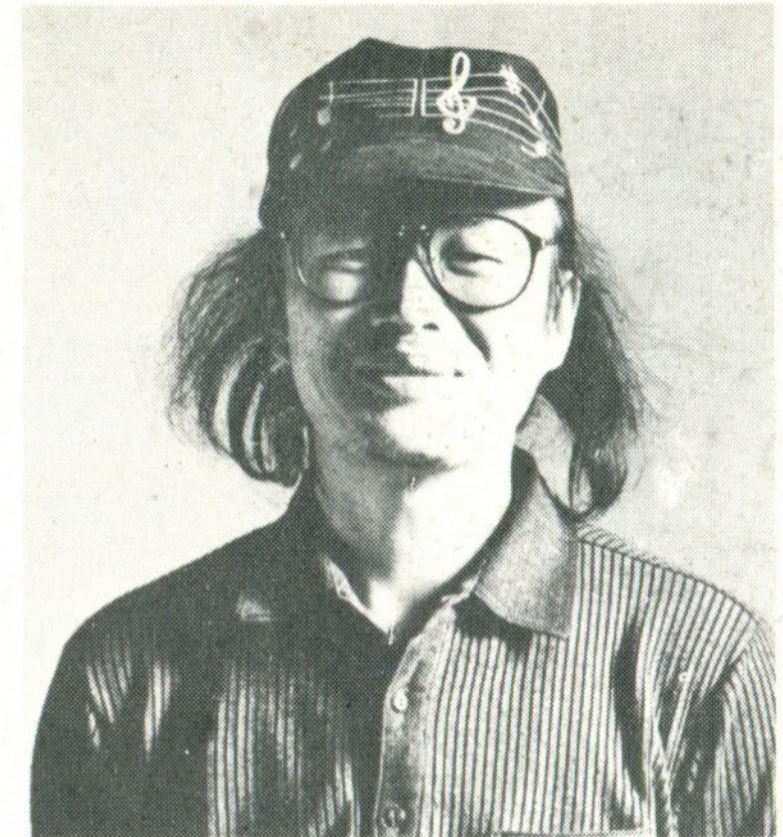
사강문화센터

'87. 12. 30 ▶ '88. 1. 10

〈5:00,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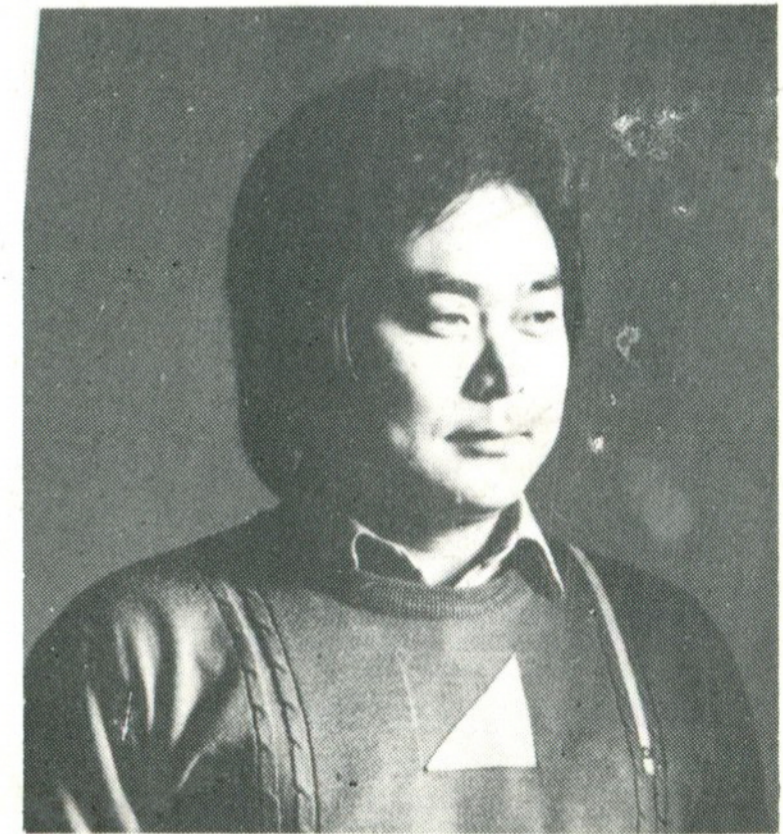
MAN. 박지일



크라프·허대영



제리·김하균



피터·박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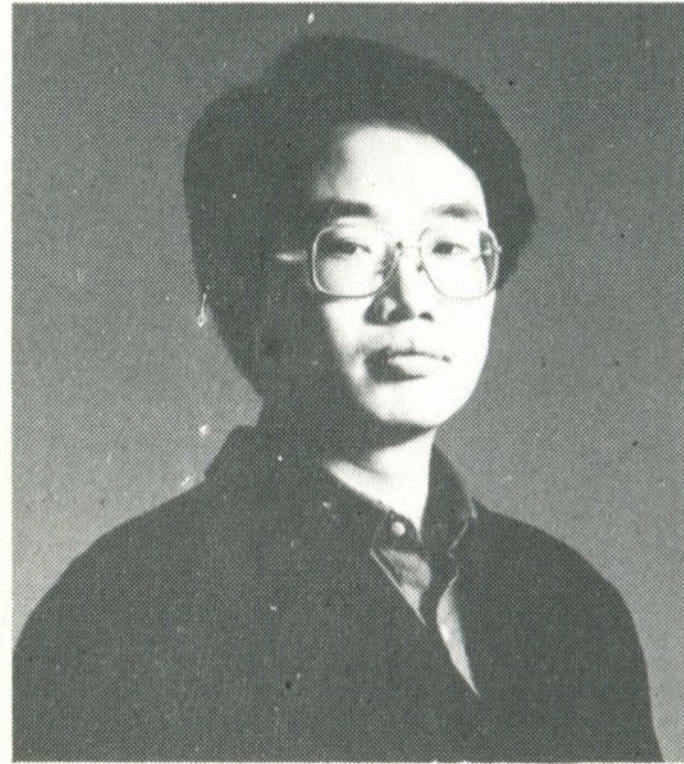
# 동물원 이야기

에드워드.올비 作

도레미문화센터

'88. 1. 3 ▶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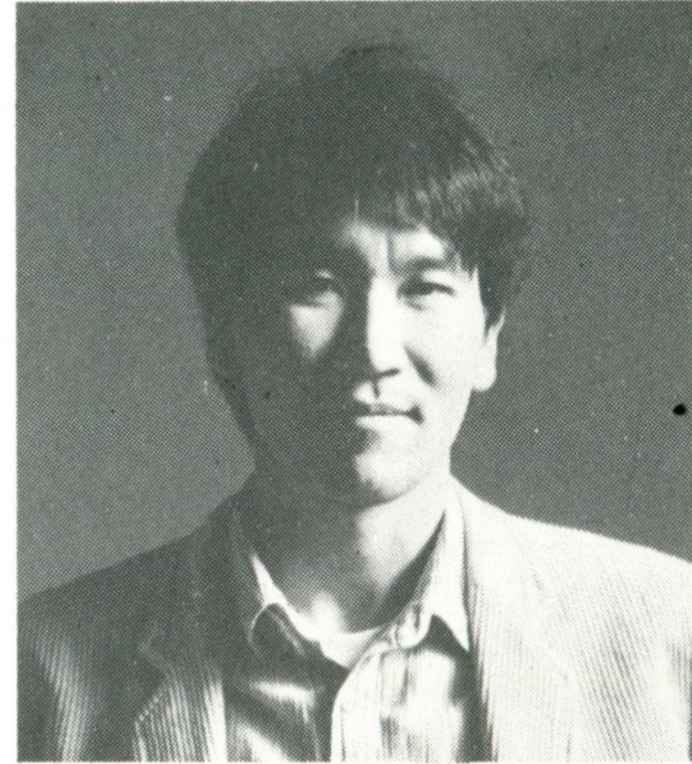
〈5:00,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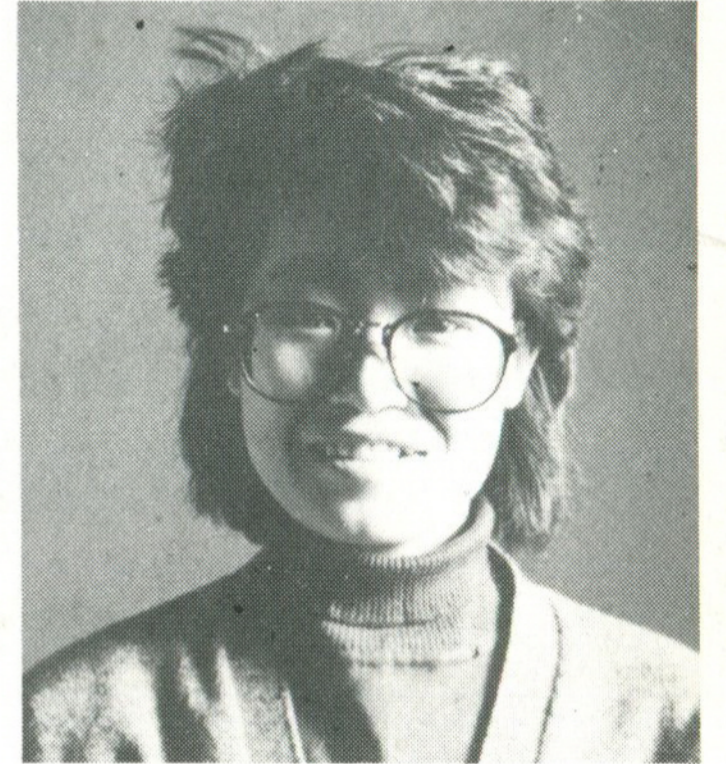
기획·김홍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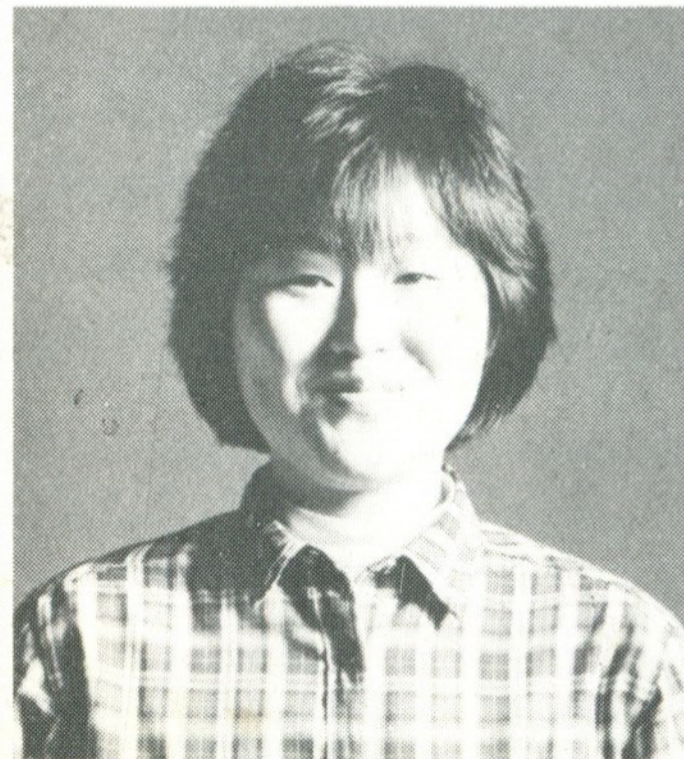
무대감독·허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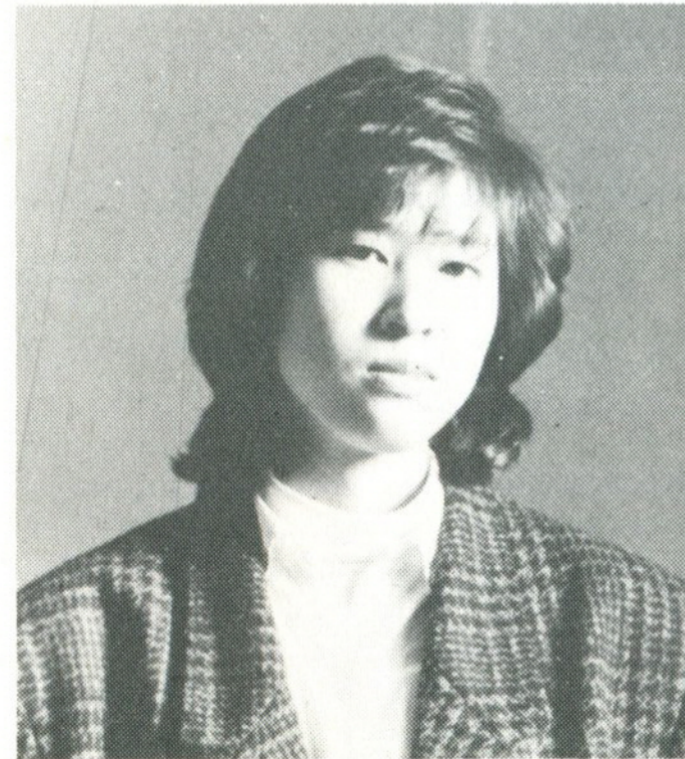
무대미술·이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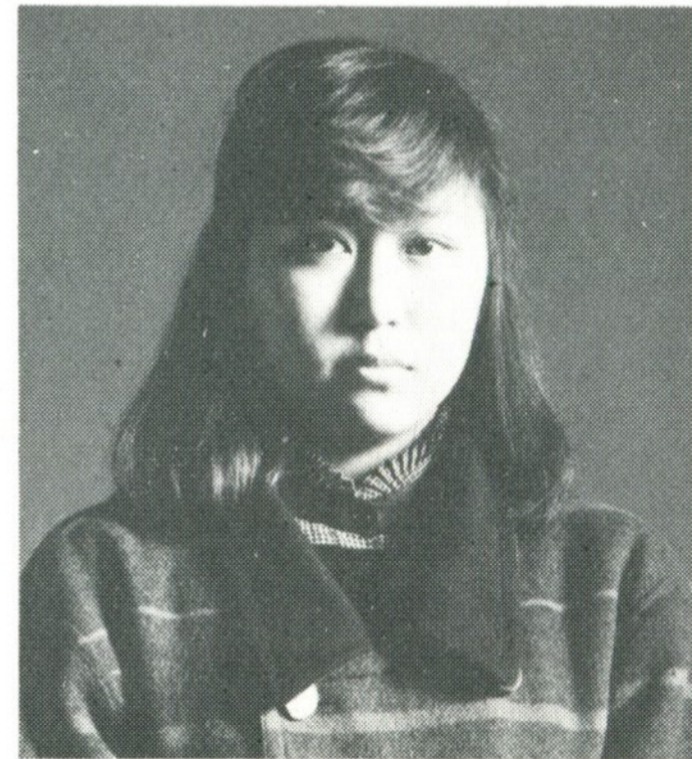
소품·여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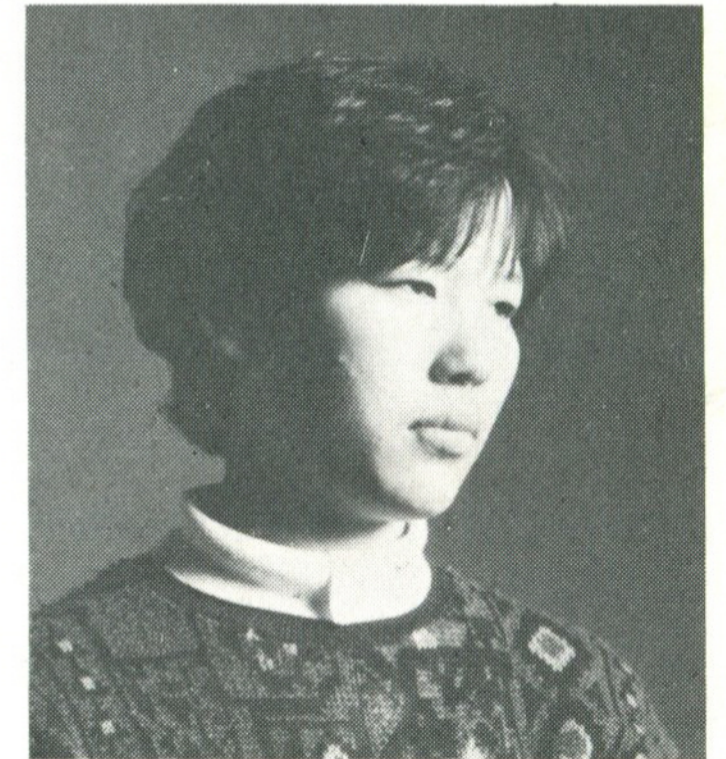
조연출·진행·이재필



조연출/의상·홍미란



조연출/조명·최분이



진행·김숙현

1950년 독일에서 초연된 에드워드·올비의 첫 작품 '동물원 이야기'는 한 시간내에 공연이 될수 있는 단막극으로

이 짙막한 극에는 흔히 볼수 없는 특수한 성격의 소유자로 대조적인 두 인물이 등장한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젊은 제리와 안정된 사회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40대의 전형적인 중류계급의 가장인 피터가 공원벤치에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기계화된 현사회에서 타인과의 사교환, 또는 소통이 불가능해진 현대인의 처절한 모습이 극적으로 부각된 작품이다.

# 動物園 이야기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어버리는 '고독한 자유항해'로서 인간이 스스로 만든 인생을 그리고 있다. 인생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의 결과로 생기는 고독은 삶의 규범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한 타당한 이미지로서 극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지는 동물원의 이미지에 의해 강조된다.

이극은, 30代 후반에 있는 소외당한 인간 제리가 사회 그 자체가 갖고 있는것 보다도 더 절박한 인간교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제리는 하숙집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사실상 과거로부터도 단절되어 있다.

외부와의 단절 및 소외된 제리에 비해 피터는 정기적 급여, 가족, 그리고 애완동물마저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한다. 그는 <건전한 책> (right books)을 읽고, 공원의 <바른쪽> (right side)에 앉아 있으며, 매디슨가에서 <좋은직업> (rightjob)을 갖고 일하고 있다. 가진 것이 없는 제리와 가진것이 많은 피터는 벤치때문에 싸움을 하게 된다. 여기서 제리의 역할은 절연속에 빠진 피터를 구하고 그들 동

료들과의 순수한 상호관계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피터 또한 제리처럼 궁극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놓여있다.

벤치의 소유권에 대한 싸움중 제리는 피터의 벤치방어가 인간조건 의 하나인 고독을 방어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인간생존의 진지한 문제로 부터 인간의 주의를 떠돌리는 사회의 가치관의 정당화라는 것도 깨달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대처하는 인간의 반응,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성공을 수행이상으로 평가하는 반응에서 생긴다는 올비의 신념이 표현된다.

인간의 소유권, 갈등, 생사가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원인에서 발단되는가 하는 면을 간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이 극은 인간의 의사전달이 거부된 상태, 인간 밑바닥에 도사리고 앉은 어리석음을 그의 독특한 대사로 엮어내고 있다.

존오스본의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가 영국의 앵그리 영맨의 생 태를 그린 것이라면 이극은 어느면으로 보나 미국의 젊은이들의 생 태를 부각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반극작가라고 자칭하는 유진·이오네스코의 작 품에서 흔히 볼수 있듯이 성격과탄과 의사교류의 방법을 잃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집약한 극이라고도 할수 있다.



# Samuel Beckett

一九〇六年四月一三日 아일랜드의 수도 『듀블린』 부근의 『폭스록』마을에서 적산사(積算士)의 아들로 태어났다.

『버나드, 쇼』 『와일드』 『예츠』 와 마찬가지로 『프로테스탄트』 의 『아일랜드』 중산계급 출신이다. 나중에는 신앙을 버렸지만 어릴때 부터 『나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는 의문이 몸에 밴 생활 환경 이였다.

一四세때, 『베케트』는 영국계 아일랜드 사람이 경영하는 『포트러 로일』학교에서 『오스카, 와일드』와 함께 공부했으며 一九二三 년엔 『다블린』의 『트리니티』대학에 진학하여 불란서 이태리 문학을 전공 하고 二七년에는 문학사호를 받았다.

그는 성질이 너무 좋아 파리의 고등사범학교의 교환강사로서 지 명되어 二八년 파리로 가서 『제임스 조이스』와 만나 문학씨클의회 원이 되었다.

二三세때 은사 『조이스』의 작품을 옹호하는 머리말을 에세이로 썼다.

술을 곧잘마신듯 一九二九년 六월에 베풀어진 『율리시즈』 점심 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조이스』더러 배스를 스톱시켜 길가의 카페 에서 한잔 더 하고 가자고 끈질기게 졸라 동행한 『발레리』 『안도 란, 모네』와 충돌한 일도 있다고 한다.

그는 파리에서 『시간을 주제로 하는 가장 좋은 시』를 써서 문학 상을 받아 二四세부터 문학과 학의 생활에 돌입, 주로 『프추스트』 연구에 열을 올렸다.

일단 고국으로 돌아 왔으나 문파리에 들릴적마다 『조이스』를 방 문했다.

두 사람은 묵묵히 맞대고 앉아 생각난듯이 『이상주의자였던 『흙』 이 무슨 역사를 쓸수 있었을까』하면서 조이스가 내뱉으면 『베케트』 는 서슴없이 『개념의 역사겠지요』 하며 대답했다.

三三년에는 런던으로 옮겨 갔으나 그의 런던 생활은 불행했고 三 七년부터 파리에 정착했다.

그는

**有限과 無限과 空間과의 관계와 전통적인 신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작가이다.**

그의 초기작품 『머피』나 『와트』라는 소설은 영어로 씌어졌 으며 『카프카』의 사상을 담고 있다. 그의 대표작은 一九五二년에 발표 된 희곡 『고도(神)를 기다리며』이다.

五四년에 그 스스로가 영어로 번역한 이 희곡에서 『베케트』는세 계적으로 각광받는 작가가 되었다.

五八년부터 六四년에 발표된 『어떻게 되어 가는가』라는 소설을 빼놓고는 희곡을 썼다. 방송국과 연극에서 가장 널리 주목을 끈 것 은 『끝난 게임』과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는 이때부터 『앙티 페 아뜨르』 (反演劇)운동의 기수가 되었다.

파란눈에 재빛머리카락, 키가 큰 『베케트』씨는 말이 적고 고독 을 즐기며 금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인의 부인과 함께 파리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나 현재 『튜 지니아』에 여행중이라고 한다.

그의 작품 세계를 살펴 보면 전후의 유럽에서 가장 난해한 작가 의 한사람인 『베케트』씨는 어느 의미에서 『도전』의 작가라고 할수 있겠다.

그의 작품 발표 순위도 때로는 연대순으로 되지않고 뒤엎어 지 기도 했다.

『베케트』씨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은 四五년부터 六五년 사이에 쓰여졌으며 그의 문학작업이 二〇년이상이나 지속됐을 뿐 아니라 작품마다 쓰여진 당시에 발표되지 않고 맨처음에 쓴 작품이 맨나 중에 발표되는 식이었다.

그의 작품의 내용이나 기법이 모두 전통적인 것을 뒤엎는데서 출



발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五五년부터는 그무렵에 썼든 『앙리떼아뜨르』운동의 비극적 측면의 기사로 지목되었다.

그의 본체는 역시 『아일런트』태생의 풍자 소설과 『쉬프트』의 스타일과 흡사하며 서사시처럼 내적인 응결력을 갖고있다.

그의 작품속에서는 지옥과 현실생활간에 별 거리가 없다.

마치 그의 영어와 불어의 구사력에 별거리가 없듯이.

『베캅트』씨는 역시 난해한 작가인 『단테』 『조이스』 『푸르스트』 그리고 형이상학자 『게링크스』나 『말레브랑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유한(人間)과 무한(時間)과 공간(空間)과의 관계와 전통적인 신의 모습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작가이다.

냉혹한 무한의 위협아래서 인간의 방황은 메마르고 위안 이라곤 털끝만치도 없으나 그래도 추진력을 가져오는 세계를 그려낸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역사를 창조하려고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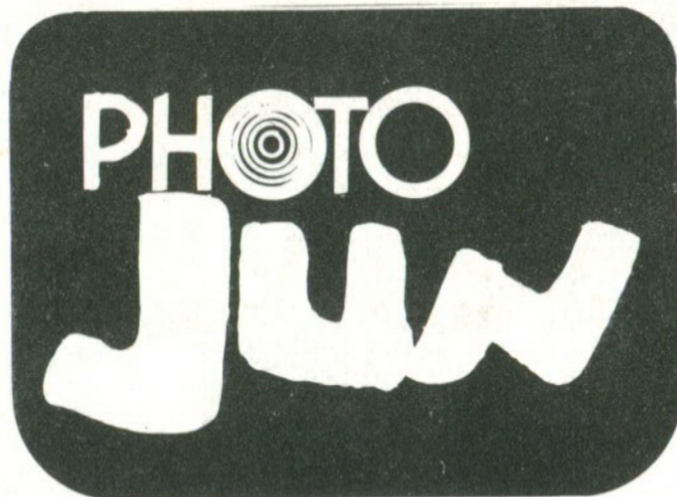
말하자면 전후 어느 의미에선 인간의 가치 세계가 송두리채 허물어진 세계에서 새로운 신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그의 작품활동으로 나타났다. 그의 대표작 『고도를 기다리며』가 이를 설명해준다.

그는 스스로 방랑객의 칼에 찔린 적도 있지만 이 『고도를 기다리며』는 인적없는 시골에서 방랑객(인생의 방랑객)들이 새로운 가치세계(고도)를 기다리는 대화에서 시작하여 끝내 『고도를』 찾지 못하고 끝난다.

세계를 뒤흔든 六八년 五월의 파리 학생데모나 六九년 一〇월 一五인의 미국반전 데모도 기성세력에 대한 『앙티』(반체제) 운동이었다. 『앙티, 떼아르트』의 기수 『베캅트』씨가 금년도에 수상된 것도 이러한 세계의 흐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베캅트』씨는 『고도를 기다리며』의 후편으로 『승부의 종말』을二막물로 내놓고 나중에 一막물로 압축했다.

그는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되풀이되는 상황을 중요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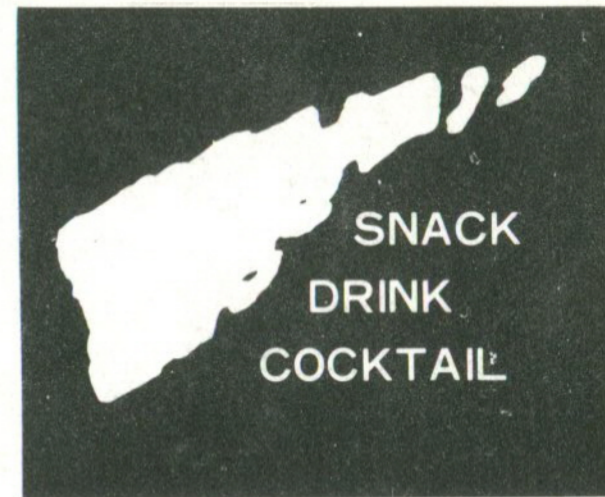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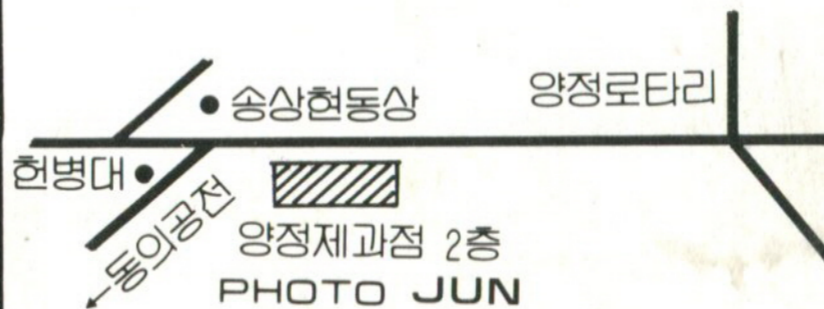


- 상업사진 및 작품사진
- 건축물 및 미술작품 촬영
- 카다로그·팜프렛
- B/W open 암실운영
- 패션모델 촬영
- VTR 촬영 편집
- 행사스냅 촬영
- 사진세미나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3동 353-6

☎ 866-8666

〈김동준사진작업실〉



**실크하우스**

COCKTAIL &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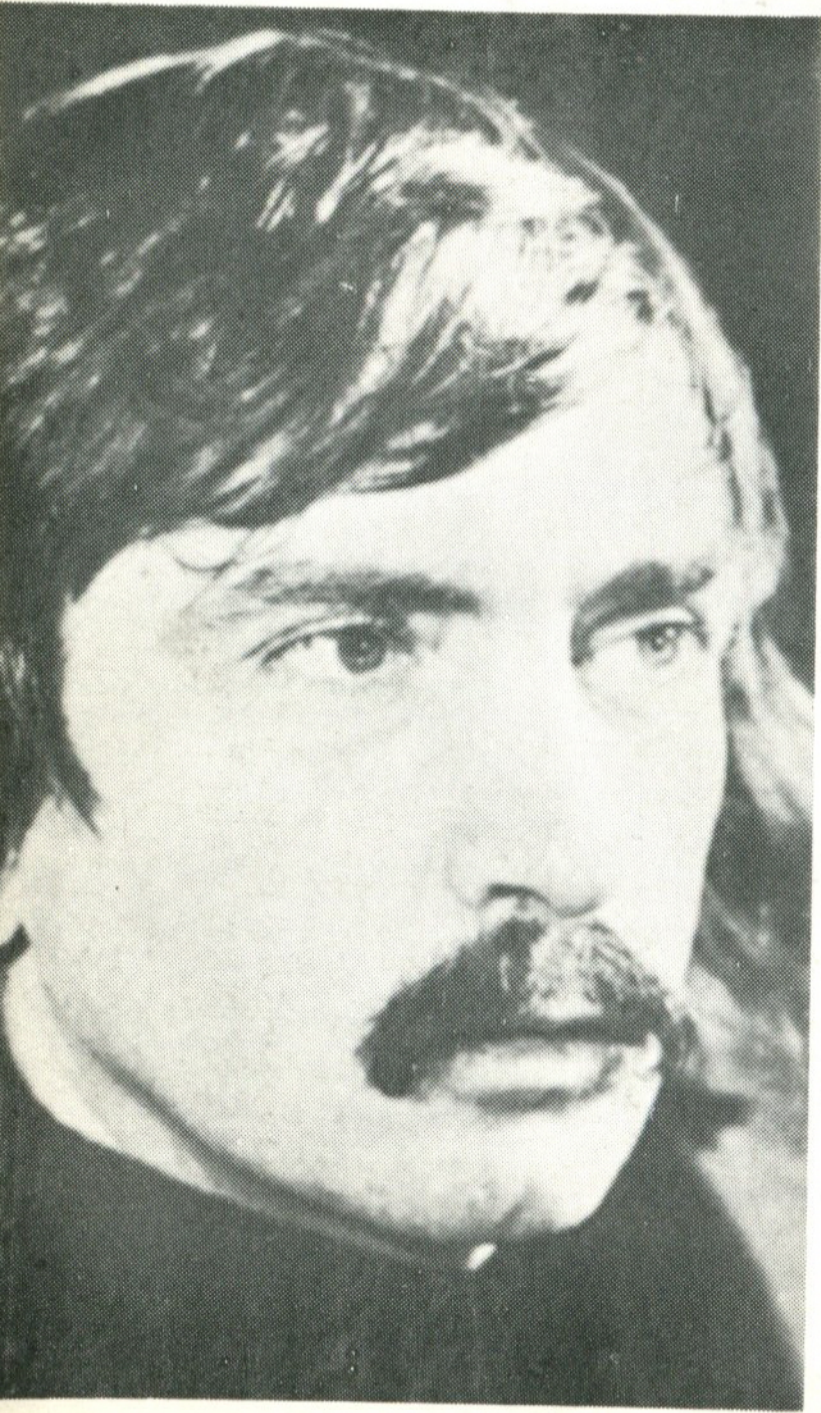
**SILK HOUSE**

☎ 806-4768

서면 대아호텔후문 앞

**올** 비는 1928년 3월12일에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으나, 그의 생년월일은 어디까지나 기록에 의한 것이지 사실의 진부는 알 수가 없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채 낳은지 2주뒤에 뉴욕시로 이송됐으며 서커스를 경영하던 리드올비의 양자로 입적되어 뉴욕시의 하류사회 사람들이 사는 웨스트체스트 郊外 라치몬드의 화려한 저택에서 호화롭게 자라났다.

# Edward Albee



그의 幼年時節에 관해 별로 알려진 사실은 별로 없으나 적어도 그의 청년기는 설사 난폭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과격 한 것이었음에도 틀림이 없다.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그는 문제아로 취급되어 11세때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로렌스빌 기숙사 학교에서도 결국 쫓겨났으며 그후 벨리퍼지 유년학교와 초아트의 한 사립학교를 전 전하게 되었다.

그후 하트포트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서 1년반 동안 공부를 했 으며 그후 부터는 뉴욕시에서 방랑생활을 시작했다.

광고회사의 校正員으로 레코드 판매원으로 또는 식당의 급사로 일을 해오다가 라디오드라마를 쓰기도 했다. 뉴욕시의 WNYC 방 송국에서의 경험이 훗날에 그를 극작가로 대성시키는 계기가 되었 는지도 모른다.

그후 그는 방송국일도 집어치우고 전보배달부가 되었다. 그는 이 직업이 제일 마음에 들긴 했지만 환자의 사망을 알리는 전보를 배 달하는 일은 괴로웠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그는 병역도 마친 것으로 되어있는데 군복무시에는 군의 언어학 교에서 러시아어를 공부했다고 한다.

이렇게 잡다한 일을 해 오면서도 그는 꾸준히 창작연습을 했다.

조모가 죽으면서 남긴 주50달러의 유산으로 생계에 그리 지장이 없 어 틈틈이 시와 소설을 썼으나 출판도 안되었고 본인도 싫증이 나 29세때부터 극작에 손을 댔다.

1959년 독일에서 초연된 '동물원 이야기'가 그의 첫 작품인데, 첫 작품이 본토가 아닌 독일에서 공연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당시의 미국 극계에서는 엄청난 공연비때문에 신인들의 작품을 감 히 공연할 생각을 못했다.

정평이 있는 작가의 것을 공연한다는 무사주의가 지배적 이었기 에 올비같은 신인작가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다.

올비는 자기 돈을 써가면서 독일에서 공연할수 밖에 없었는데 예 상외로 공연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어서 다음해 1월에는 오프 브로드웨이의 프로빈스타운 극장에 서 공연되어 미국 극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 작품이 공연될 무렵 그는 흑인여가수 베시스미스의 무참한 죽 음을 소재로한 '베시스미스의 죽음'의 집필을 완료했으며, 이후 그 는 '팸과양(1959)' '미국의 꿈(1960)'을 발표했고 1962년엔 '누 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로 뉴욕 비평가상을 수상하여 유명 해 졌으며 그 극으로 인해서 브로드웨이에 진출하여 국내외적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무렵 그는 거물급 극작가연맹에 가입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으 며 그의 작품의 대부분은 브로드웨이 밖에서 공연되기 시작했다.

'버지니아 울프'의 성공의 뒤를 이어 세편의 劇이 계속 나 왔는 는데 각색물인 '슬픈카페의 노래'와 '작은 앨리스'(1963), 그리고 또 하나의 각색물인 '맬콤(1965)'이 있다.

이후 '미묘한 균형(1966)'으로 풀리처상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 원안의 모든 것'(1967) '상자와 모택동어록'(1968) '운명하셨습니다'(1971)와 '바다풍경'(1974)을 썼으며 1974년 다시 풀리처 상 을 받았다.

70년대 후반에는 '청취'(1977)와 '듀북크에서 온 여인'(1978)



“  
 기계화된 사회때문에  
 붕괴되어가는 가정,  
 남녀 애정의 공허감을 그는  
 거의 笑劇적인  
 테두리안에서 부각시킨다  
 ”

을 발표했다.

올비가 앞으로 어떠한 작품을 쓸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트루먼캐포트의 소설 '티파니에서 아침을'을 뮤지컬로 희곡화 하는데 한몫 나서기도 했다.

여태까지 나온 작품으로 보아 그가 비록 미국의 가정, 또는 미국의 사회를 그리기는 했으나 이것은 오늘날의 세계 현실의 축소판이라고도 볼수있다.

현대 인간의 숙명적인 고독감, 이오네스크가 주장하는 언어의 무의미성, 비인간성이 그 특징이라고도 할, 현대사회, 기계화된 사회때문에 붕괴되어가는 가정, 남녀 애정의 공허감을 그는 거의 笑劇적인 테두리안에서 부각시킨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맹점을 도려내면서도 그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시니컬한 작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 극계에서의 그의 선배들이 인간상호간의 갈등이나 사회정의, 또는 억압된 욕망을 갈파하는데 그 노력을 다한 반면 올비는 현대인의 실재자체의 파악이라는, 보다 형이상학적인 문제 자체에 집착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올비는 비논리적인 인간의 행위, 극복할 수 없는 고독감으로 해서 오히려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마는것을 그는 현대인의 특징으로 본다.

극단 부두극장의 제15, 16회 정기공연을 축하합니다.



대표 박 기 욱

전문한정식, 연회석완비  
 (2F) 806-9540  
 ☎ (3F) 806-9616 (3F)

